



2018 04 02 ()

1.	, 03	3
2.	' . , > 03	4
3.	, > 02	5
4.	, > 03	6
5.	> 03 4.07 1	6
6.	- > 03	7
7.	> 01	8
8.	> 03	9
9.	"02 " > 03	10
10.	> 03 2	10
11.	> 05	11
12.	, ' , > 02	11
13.	" , 1 1 TV " > 02	12
14.	5 > 01	13
15.	. > 01 85	14
16.	' , ' , > 03	14
17.	, > 03	15
18.	' , > 01	15
19.	. > 03	16
20.	GM ' , > 01	16

21.	> 02 2	17
22.	> 01 4 1	18
23.	35 > 02 1.54 1... 69 1.15 1	18
24.	> 03 ‘ - ’	19
25.	> 03 ,	19
26.	> 03 ,	20
27.	" 가 > 01 "	20
28.	" > 01 "	21
29.	4 > 01	22
30.	> 03	23
31.	> 01 ,	24
32.	> 01 ' 3 가 '	24
33.	> 03 ?	25
34.	" . > 05 "	25

문 대통령, 단체관광·미세먼지 해결 중국과 협력기로

방한 中 양제츠 위원과 면담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으로부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단체관광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은 양제츠 위원을 만나 중국의 단체관광 정상화, 롯데마트의 원활한 매각 절차 진행 및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재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등 관심사항을 말했다”면서 “이에 양 위원은 중국이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 관련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또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중국 요인도 있는 만큼 한중 사이에 긴밀한 협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국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연하했다.

사이에서 높다”고 말했다. 이에 양제츠 위원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문제는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출범시켜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며 센터의 조기 출범에 동의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면담에서 양 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언급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23.5*13.8)cm

한중 ‘비핵화·미세먼지’ 협력

문 대통령, 양제츠 위원 만나 한중환경센터 조기 출범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을 만나 중국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양국간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양제츠 위원을 접견하고 “한국의 미세먼지가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중국 요인도 있는 만큼 한중간 긴밀한 협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우리 국민 사이에 높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 정부에게 미세먼지 문제를 항의해 달라’는 청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은 이와 관련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문제는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출범시켜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중 양국의 지난해 12월 한중정상회담 결과 언론발표문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노력에 관한 내용을 채택한 바 있다.

양국은 이에 따라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올 6월경 출범하기로 하고, 두 나라 환경부 장관 등 고위급 관계자들이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양 위원을 만나 자리에서 중국의 단체관광 정상화와 롯데마트의 원활한 매각절차 진행 및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재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해결 등도 촉구했다.

양 위원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고, 관련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될 것이다”며 “이를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해 사드 보복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양 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조치라는 김 위원장의 의중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면서 “단계적·동시적 제안을 포함해 미국과 대화를 하려는 김 위원장의 태도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12.1*14.3)cm

중국, 경제 보복 철회 약속

문 대통령, 양제츠 위원과 면담
미세먼지 대응센터 조기 출범도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으로부터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양제츠 위원은 이 자리에서 사드(THAAD)배치로 촉발된 중국의 경제 보복을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미세먼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조기 출범에도 동의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3시30분부터 4시40분까지 70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과 양 위원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으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의 단체관광 정상화, 롯데마트의 원활한 매각 절차 진행 및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재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며, 양 위원은 “중국은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관련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이를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문 대통령이 “한국의 미세먼지가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중국 요인도 있는 만큼 한중 사이에 긴밀한 협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높다”고 말하자, 양 위원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문제는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출범시켜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조기 출범에 동의했다. 한중 환경협력센터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으나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김 대변인은 “환경장관 간 협력을 포함해 고위급 관계자들이 이른 시일 안에 만나는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양제츠 위원은 이와함께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충칭의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과 관련해 “관련 지방정부에 복원을 서두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청와대=이성원기자

(11.9*18.0)cm

03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심사 실시

더불어민주당은 2일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공천관리위)는 지난 24일까지 시·도지사 후보 접수를 마감한 뒤에 지난 말까지 서류심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2일 면접을 실시하고, 후보적합도 조사 등을 반영해서 단수 및 경선후보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은 광역단체장 경선 시 권리당원 ARS와 비권리당원 유권자 안심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고, 공천심사 때

는 당선 가능성(30%), 정체성(15%), 업무수행 능력(15%), 도덕성(15%), 면접(15%), 기여도(10%)를 종합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 추천관리위원회는 당 지도부가 입당을 승인한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의 전남지사 후보자력 인정 문제와 경남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의원의 공천 문제 등에 대해서 추후 논의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지사후보에는 송하진 현 지사와 김춘진 전의원이 나섰다. 서울=김영목기자

(13.4*6.6)cm

03

민주 전북 기초단체장 4.07 대 1 사상 최고 경쟁률

57명 출사표... 현역 불출마 군산·익산·김제 등 5~8명

광역의원 68명, 기초의원 225명 접수 1차 컷오프 주목

■ 후보접수 마감결과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후보 접수마감 결과 전주시장 등 14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 총 57명이 나섰다. 광역의원은 68명, 기초의원은 225명 접수했다. 특히 지선을 앞두고 민주당 탈당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강인영 전 순창군수는 후보접수를 하지 않아 민주당평화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4.07대 경쟁률을 역대 지선 중 최고 경쟁률을 보인 기초단체장 후보 접수에서 익산시장과 정읍시장, 김제시장, 군산시장 등 민주당 현직이 출마하지 않는 무소속 지역에 후보가 대거 몰려 컷오프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 14개 기초단체장 민주당 공천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김제시장 선거로 총 8명이 접수했다. 다음은 정읍시장 7명, 익산시장 6명, 군산시장 5명 순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공천과 관련 "후보가 난립한 지역의 경우 2~3배수 압축이 쉽지 않다"며 "여론조사를 실시해 1차적으로 후보를 가르고 이후 2번에 걸쳐 경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순히 1차 컷오프 이후 배수압축이 아닌 두 번에 걸쳐

경선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3배수 경선을 진행하는 사실상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공모 결과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심사 모드로 전환했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 마감일 다음 날인 31일 별도로 위크업을 갖고 면접심사 방식 및 평가 기준 등을 공유했다. 민주당 공천위는 내달 2~4일에 경선에 앞서 후보 배수 압축 여론조사를 진행, 후보자 경쟁력 검증 작업을 거친 뒤 6일부터 8일까지 면접심사를 갖는다.

양자 대결 구도로 관심을 모은 전주시장 선거에는 김승수 현 시장과 이현웅 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이 공모했다. 또한, 민주당평화당 소속인 현 시장과 일전을 앞둔 익산시장 민주당 경선에는 황현, 전완수, 김대중, 김영배, 김성중, 정현호 예비후보 등 6명이 접수를 마쳤다.

현직 단체장의 출마제한으로 사실상 무주공산인 군산시장 경선 분위가 역시 박재만, 이재호, 강임준, 강성욱, 문택규 등 총 5명의 후보가 몰렸다. 김제시장 선거에는 신성욱, 정호영, 유대희, 강동룡, 오병현 이흥규, 나유인, 박준배 후보가 접수, 도내에서 가장 치열한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공천신청자 현황

지역	공천신청자
전북도지사	김춘진, 송하진
전주시장	김승수, 이현웅
군산시장	강성욱, 강임준, 문택규, 박재만, 이재호
익산시장	김대중, 김성중, 김영배, 전완수, 정현욱, 황현
정읍시장	김석철, 김영배, 우원규, 유진섭, 이상욱, 이학수, 한명규
남원시장	윤승호, 이상현, 이환주
김제시장	강동룡, 나유인, 박준배, 신성욱, 오병현, 유대희, 이흥규, 정호영
완주군수	김영, 박성일, 유희태
전안군수	김현철, 이항로
무주군수	백경태, 서정호, 황정수
장수군수	양성민, 오재만, 이영호, 장영수
임실군수	박성수, 이광경, 전상두, 한병락
순창군수	왕영수, 장종일, 황숙주
고창군수	박우경, 이호근, 장영식
부안군수	권익현, 김성수, 김인수, 서주원

김생기 현 시장이 낙마한 정읍시장 민주당 경선 역시 과열 양상이다. 이상욱, 유진섭, 김석철, 김영배, 한명규, 우원규, 이학수 등 7명이 접수,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완주 현 남원시장에 맞서 전직시장인 윤승호 후보와 이상현 도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임실군수에는 이광경, 박성수, 전상두, 한병락 등 4명 후보가 무소속 심민 군수 대항마로 나서기 위해 공천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여섯 후보가 유원제 나선 장수군수 민주당 경선에는 이영숙, 양성민, 장영수, 오재만 후보 간 4파전이 예상된다.

강인영 전 순창군수는 민주당 공천을 신청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강 전 군수는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예비후보 등록 후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창군수 민주당 후보 공모에는 황숙주 현 군수와 양영수, 장종일 후보가 등록했다.

이밖에 박성일 완주군수의 재선 가도에 유희태, 김영 후보가 경선 도전장을 던져 3파전이 예상된다. 무주군수 후보 공천장을 얻기 위해 황정수 현 군수와 백경태 도의원, 서정호 후보가 공모했고, 전안군수 후보 공모에는 이항로 현

● 민주당 광역의원 공천신청자 현황

선거구	신청자	선거구	신청자
전주 1선거구	정호윤	전주 2선거구	오병근
전주 3선거구	이병도	전주 4선거구	김이재, 한기표
전주 5선거구	이병철	전주 6선거구	김희수, 박현규
전주 7선거구	소순영, 송성환	전주 8선거구	김명지, 오정화
전주 9선거구	국주영은	전주 10선거구	최찬욱
전주 11선거구	이명연	군산 1선거구	강태창, 김진, 니키펵
군산 2선거구	김동구, 김종식, 윤호모, 이화숙, 최승란, 한상오	군산 3선거구	김문수, 조동용
군산 4선거구	문승우, 이복	익산 1선거구	김대오, 박정수
익산 2선거구	김정수	익산 3선거구	김기영, 배수연
익산 4선거구	이명기, 최명규	정읍 1선거구	김철수, 임승식
정읍 2선거구	김대중, 김성민	남원 1선거구	박철순, 이정민
남원 2선거구	강영구, 우진용, 이영모	김제 1선거구	홍성학, 황영석
김제 2선거구	나인권, 장영주, 최희원	완주 1선거구	송지용
완주 2선거구	강성봉, 권오만, 두세훈	진안군	김남기, 이충국, 이한기
무주군	이성수, 이한승, 황의택	장수군	이화숙, 정영숙
임실군	박정규, 한원수	순창군	최영일
고창 1선거구	성경현	고창 2선거구	김민기
부안군	조병서, 최현열		

군수와 김현철 도의원이 신청을 마쳤다. 박우정 고창군수에게는 도의원 출신인 장명식, 이호근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고, 무소속 단체장 지역인 부안군에선 서주원, 권익현, 김성수, 김인수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

올해 39명을 뽑는 광역의원 지역구 후보로는 68명이 몰려 2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군산시 2선거구에 5명이 접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영일, 송지용, 김정수, 정호윤, 오병근, 이병도, 이병철, 국주영은, 최찬욱, 이명연 후보는 단수로 등록, 사실상 광역의원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상태다. 197명을 뽑는 기초의원 지역구 후보로는 225명이 등록했다. 다수 지역의원 정수에 맞춰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민주당 전북도당은 내달 8일 이후 면접 심사를 마친 후 단수 후보자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전행남 기자

(35.9*20.5)cm

한국-바른미래 선거연대론 정치권 최대 이슈 부상

가능성 열어 둔 김성태·유승민
박주선 “과잉 보도됐다” 선 그어
민주당·평화당 비판의 목소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지방선거 연대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서울-제주 지방선거 연대 발언과 관련, “문재인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 야권은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공조를 얘기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이후에 기자들의 선거연대에 관한 질문에 “야권 공조를 위한 진정성이 국민앞에 서로 담보될 때 이뤄질 수 있다.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김 대표의 이같은 답변은 6.13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후보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유승민 대표는 전날 야권연대 가능성에 관해 “제주도, 서울이든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인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몇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필요에 따라서 당내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서울과 경기, 제주, 충북 등에서 당 차원 또는 자체적으로 한국당과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장 안철수, 경기지사 남경필, 제주지사 원희룡 등으로 후보 단일화 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출범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안철수 전 대표의 보수 야합의혹과 관련된 것이어서, 바른미래당은 물론 평화당, 민주당도 까지 발칵 뒤집혔다.

바미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30일 최고위에서 유승민대표의 연대시사 발언을 언급하면서 “과잉 보도됐다. 당내 또는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정농단과 한법유린을

자행하고도 통렬한 반성과 사과도 없는 한국당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차라리 선거연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당을 하라”면서 “바른미래당은 개혁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를 표방했지만, 이는 말뿐이었고 적폐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미당 출범에 대해서 보수야합이라고 비판했던 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바미당과 통합은 보수야합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창당한 우리 민주평화당의 정당한 우려와 지적들을 음모론과 정치 공작으로 비판한 안철수 전 대표 등은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안철수는)국민의당 당대표 경선 당시 보수통합은 절대 없다고 주장하고, 당대표가 되니 곧바로 통합을 추진했던 것은 말 바꾸기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면서 “안 전 대표의 보수대연합 시도에 맞서 당을 지키고자 했으나 온갖 전횡과 불법 탈법을 낚아드는 통합시도로 결국 바른정당에 제물이 됐다”고 안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김영록기자

(31.2*12.2)cm

민주당 후보난립지역 결선투표 간다

김제·익산·정읍 시장후보 6~8명 몰려 경쟁치열

1차 경선 3배수 압축... 최종 결선투표로 판가름

더불어민주당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김제시장을 비롯 익산시장, 정읍시장 등 후보 난립과 지선 후보 간 경쟁력이 엇비슷해 1차 컷오프 이후 곧바로 후보 경선이 쉽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8명의 후보가 몰려 있는 김제시장과 정읍시장(7명), 익산시장(6명) 선거가 결선투표를 통해 공천자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도당 관계자는 1일 “공직후보 자격심사 과정에서 진행되는 여론조사 만으로 3배수로 후보를 압축해 경선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1차 경선을 진행해 후보를 압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후보난립 지역은 후보적합도 여론조사를 통해 하위 후보 한 두 명을 탈락시키고, 1차 경선에서 3배수로 압축해 최종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이 같은 경선 방식과 관련, “역대 선거에서 정체성, 도덕성을 이유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탈락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지선은 객관성 확보를 통한 투명한 공천을 진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1차 경선과 결선투표는 권리당원 50+

일반유권자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도당의 경선 일정도 후보 경선 압축이 쉬운 먼저 지역부터 진행되고 난립지역은 오는 4월20일 전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장 민주당 경선에는 황현, 전완수, 김대중, 김영배, 김성중, 정현욱 예비후보 등 6명이 접수를 마쳤으며, 김제시장 선거에는 신성욱, 정호영, 유대희, 강동룡, 오병현, 이흥규, 나유인, 박준배 후보가 접수해 도내에서 가장 치열한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정읍시장에는 이상욱, 유진섭, 김석철, 김영재, 한명규, 우천규, 이학수 등 7명이 접수,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이들 지역의 모 후보는 결선투표 도입에 대해 “후보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며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경선 지형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1차 경선과 결선투표의 정치지형이 달라져 의외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경선은 다자대결 구도로 전개되지만 결선투표는 많은 후보가 탈락한 이후 진행돼 자연스럽게 후보 간 합종연횡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22.5*19.4)cm

후보 밀집 지역 다수 단체장 선거 결선 투표 도입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이 경선을 1, 2차로 나눠 치르는 등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도당은 전날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워크숍에서 이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김제와 군산, 정읍, 익산 등 후보 난립지역에서 결선투표를 검토 중이다.

도당 관계자는 1일 “공직후보 자격심사 과정에서 진행되는 여론조사 만으로 3배수로 후보를 압축해 경선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1차 경선을 진행해 후보를 압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후보난립 지역은 후보적합도 여론조사를 통해 하위 후보 한두 명을 탈락시키고 1차 경선에서 3배수로 압축하고 최종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역대 선거에서 정체성, 도덕성을 이유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탈락한 사례가 많았다”라며 “이번 지선은 객관성 확보를 통한 투명한 공천을 진행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1차 경선 뿐만 아니라 결선투표는 국민 참여경선 형태로, 권리당원과 일반유권자 여론조사 50%씩을 합산해 진행한다.

/서울=강영희 기자

(6.4*12.2)cm

“02로 시작되는 여론조사 전화는 꼭 받아주세요”

**언론사 공동여론조사 앞두고 대응 문자
민주당 기초단체장 적합도 조사 앞서 문자로 참여 독려
하루에만 평균 20건씩 문자메시지 공해 심각**

“여론조사가 서울 지역번호 (02)로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000을 선택해 주세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자메시지 공해를 호소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단체장 후보만 100여명 가까이 되고 지방의원까지 더하면 도내 예비후보만 500명에 가까워 유권자들을 향한 무차별 폭격이 가해지고 있는 셈이다.

선거가 2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예비 후보자뿐 아니라 지지자들이 보내는 홍보 문자 메시지는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고 있다. 발송제한을 받지 않는 카카오톡 메시까지 더하면 하루 평균 20건에 이르는 지지 문자를 받고 있다는 하소연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주 효자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는 “하루 평균 선거 관련 문자 메시지를 10통 가까이 받는 것 같다. 지역과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후보자들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다. 심지어 서울 및 경남 지역 단체장 후보한테도 문자가 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자 메시지를 볼 때마다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면서 “민주당의 후보 경선을 앞두고 횡수가 더 많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무차별적 문자 폭탄은 이렇듯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지만 예비후보자들은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열을 올린다. 특히 올해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치러져 문자 메시지 외 홍보 수단은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 50%씩을 안심번호로 추출한 뒤 결과를 합산해 후보자를 선출한다. 통신사를 통해 안심번호를 부여받는 모바일 경선 형태로 문자메시지 만큼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홍보 수단이 없다는 것이 각 후보 진영의 설명이다.

주말 동안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각 후보 진영은 언론사가 함께 진행하는 여론조사를 앞두고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했다. 시기와 방식 등을 담아 지지를 요청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진짜 여론을 만드는 상황이다 보니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초순부터 시작되는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담겨있는 셈이다.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에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위, 혹은 상승세 여론을 만들어 민주당 경선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인데 이 과정에서 문자메시지가 주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시기를 유권자들에게 알려주고 후보 진영의 대응을 이끌어내는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비등하다.

아울러 여론조사로만 후보자를 공천하는 집권여당의 경선 방식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난 선거에서 진행된 후보 토론회가 1차례도 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문자메시지 발송 자체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공식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 20명 이상 대량 문자 발송은 총 8회로 제한되지만 수신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서울=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19.9*14.6)cm

송하진 김춘진 후보 2일 민주당 면접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면접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부터 시작해 호남·영남 순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면접심사를 마치면 앞서 진행한 서류심사와 경쟁력 여론조사 결과 등을 더해 단수공천 혹은 경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공천심사 기준은 당선 가능성(30%),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정책성, 면접(이상 각 15%), 기여도(10%) 등이며 당선 가능성을 묻는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는 시도별로 31일까지 진행됐다.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 서울·경기·인천과 광주·전남·전북에 대해서는 경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과 호남은 후보자 간 심사 결과에 차이가 좀 있더라도 경선을 하는 것이 선거 전략상 좋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공천심사 결과에 따라 후보자 간 점수에 현격한 차이가 날 경우 단수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당의 규정이어서 실제 어떤 지역이 포함될지는 공천심사가 마무리돼야 드러날 전망이다.

민주당 경선은 오는 9일부터 22일 사이에 권리당원 조사 및 안심번호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과열 양상이 있는 호남과 충청 지역에서 경선을 먼저 실시하고 서울 등 수도권 경선을 최후에 치를 계획이다.

/서울=강영희 기자

(14.0*7.7)cm

김승환 인사개입의혹 법정 공방전

교육감 선거에 나선 인사들은 비난의 화살 쏟아부어
양측 싸움 선거 70여 일 앞으로 다가와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

공현철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불법 인사개입 의혹'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정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양측의 싸움은 6월 교육감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와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정 직원의 근무평정 점수를 올리도록 지시했고, 이는 법령에서 정한 교육감의 권한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단순 의견 제시'라고 주장하지만, 상명하복 관계를 감안 할 때 이는 업무지시로 봐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강조

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전북교육청 인사의 행태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지시를 하거나 강요를 한 사실도 절대 없었고, 이같은 이유로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인사 관행이란 이유로 벌어진 모든 불법을 묵인한 이유 등을 묻겠다"며 당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었던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승환 교육감과 황호진(당시 부교육감) 예비후보는 전북교육청을 4년여 동안 함께 이끌었고, 인사개입 의혹이 일어난 때에도 같이 근무했다.

이와 관련 교육감 선거에 나선 인사들은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었다.

이미영 예비후보는 "김 교육감은 입만 열면 법과 교육정의, 청렴을 강조했다"며 "3선 도전에 애기하기 전에 자숙하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임기를 잘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거석 예비후보는 "김 교육감은 자신의 과오

로 빚어진 행정 공백과 도민의 우려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교육감으로서 도리일 것"이라며 "당시 부교육감을 지낸 황호진 예비후보도 법정에 출석해 당시 벌어진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경 예비후보는 "공직자로서 법정에 왔다갔다 하는 것부터 잘못됐다. 승진인사의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인사의 원칙없이 무분별하게 코드인사로 이뤄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사개입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황호진 예비후보는 "김승환 교육감이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관례에 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를 무너트렸던 촛불혁명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고, 감사원은 이런 혐의로 지난 2015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5월2일 오후 3시 열린다.

(20.0*13.1)cm

도의회, '의장단 보궐선거' 후끈

6.13 지선 앞두고 주요 보직자 5명 사임
오는 3일 보선 앞두고 여야 물밑 신경전

정성학 기자

전북도의회가 오는 3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치른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보직자들이 시장 군수에 도전하겠다고 줄줄이 사임하고 나선 까닭이다. 현재 보선 대상은 의장을 비롯해 제2부의장, 농산업경제위원장, 교육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등 모두 5석이 나왔다.

이 가운데 의장직은 황현(민주당·익산3) 전 의장이 익산시장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공석이 됐다.

제2부의장직도 마찬가지로 정호영(민주당·김제1) 전 2부의장이 김제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빈자리가 됐다.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이학수(민주당·정읍2) 전 위원장이 정읍시장에 출마표를 던지면서, 교육위원장은 장명식(민주당·고창2) 전 위원장의 고창군수 도전으로, 윤리특별위원장은 양성빈(민주당·장수) 전 위원장이 장수군수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됐다.

4.3 보선은 이날 오후 2시 4월 임시회 개회와 함께 곧바로 치러진다. 선출방법은 임후보 여부와 상관없이 현직 도의원 모두가 후보자이자 유권자

인 이른바 '교황 선출방식'이 적용된다.

일종의 '인기 투표'인 셈이다. 당마다 다수당과 소수당간 물밑 경쟁, 또는 당내 물밑 협상도 치열한 분위기다.

최대 관심사인 의장 보선은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 이중에서도 단독출마가 유력시되는 양용모(전주8)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양 의원은 6.13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과 함께 의장 보선에 관심을 보여왔다. 유력한 경쟁자로 꼽혔던 3선 중진인 같은당 조병서(부안2) 제1부위의 경우 사실상 출마의사를 접은 표정이다.

조 부의장은 "지금은 6.13 지방선거에 주력해야 할 때이지 석달 가량 남은 의장직을 놓고 동료 의원들과 경쟁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로 이 같은 뜻을 피력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최다선인 4선에 성공한다면 의장직은 자연스레 따라오지 않겠냐는 기대로 풀이된다. 임기 2년이 온전히 보장되는 제11대 상반기 의장직을 노리겠다는 의중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1일 현재 6.13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구 시장 군수에 도전하겠다고 의원직을 사임한 도의원은 주요 보직자 5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집계됐다. 이상현(민주당·남원1), 김영배(민주당·익산2), 김대중(민주당·익산1), 장학수(민주당·정읍1), 이호근(민주당·고창1), 김현철(민주당·진안), 백경태(민주당·무주) 등이다.

이밖에 박재만(민주당·군산1), 강병진(민주당·화성·김제2) 의원도 같은 이유로 사퇴 시기를 저울질 하는 표정이다. 예상대로 사임하면 도의회는 현원 37명 중 14명이 공석이 된다.

(26.8*9.5)cm

“송하진, 1대1 TV토론 맞짱뜨자”

김춘진 도지사 예비후보 공개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도지사 예비후보가 같은당 송하진 현 도지사에게 일 대 일 TV 맞짱토론을 공개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송 지사는 현직이란 이점에 힘입어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다 자신의 실정(失政)에 사과나 반성은커녕 새로운 정책비전도 제시하지 않는 등 감감이 지방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다”며 “방송사나 시민단체 주관으로 일 대 일 TV 토론을 벌이자”고 이 같이 제안했다.

또, “송 지사는 버젓이 중앙당에 후보 등록까지 해놓고 지사직을 사퇴하지도 않은 채 침묵하고 있는데 이는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렇다보니 전라북도과 당의 위기를 막는 길은 TV 토론을 통해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지사가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1·2·3공약’을 실천하지 못한 것은 국민을 속인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을 생각나게 한다”며 “한시라도 빨리 TV 토론장으로 나와 도민들에게 사과할 것”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도지사 경선후보 TV 토론이 가능토록 각 방송사의 양해와 협조도 당부했다. /정성학 기자

(7.2*11.1)cm

전북 선거 첫 5당 체제 구도 여당 강세속 야당 호시탐탐

6·13지방선거D-72일

오는 6·13지방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선거 열기도 서서히 달아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의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 정치권 사상 처음으로, 여당인 민주당에 맞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자유한국당 이른바 5당 체제 구도로 치러져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이에 정치권에서는 선거 초반 도내 분위기는 민주당의 대체적인 우세를 점치고 있지만, 전북내 다수의 현역을 보유한 민주평화당의 기세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어 관심도는 더욱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다.

1일 여의도 및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선거초반 지역내 분위기는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속에 전북지사 등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거니와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등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집권여당 민주당의 압도적 우세를 예상하고 있다.

지역민들도 문 대통령에게 적폐청산을 완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지역민심이 지방선거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의 압승 또한 불 보듯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이

민주당, 내부 경선 갈등 과제 민평당, 현역의원 앞세워 반격 야권, 출마 후보군 영입 분주

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실제, 현재까지는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 후보들은 본선보다 당내 경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경선이 점차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후보자간 경선을 등을 놓고 적지 않은 파열음도 나오고 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최근 높은 정당지지율에 취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부 터져 나오더라도 안일한 대응 등으로 상대 당에 공격의 발미를 제공하고 있기도.

당장은 정당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지만 여야 모두 후보자가 결정되고 본선으로 들어갈 경우 충분히 결정적인 변수가 될수도 있다는 정치권의 시각인 것이다.

이에 평화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민주당 출신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촉발된 미투사건에 이어 군산 GM공장 폐쇄와 도당위원장의 골프회동, 특히 '전주봉침사건' 등을 본격적으로 이슈화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평화당 김종희 도당위원장은 "지금은 민주당이 웃고 있지만, 선거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군산 GM공장에서 '지', 도당위원장의 적절치 못한 골프회동에서 '골', 전주발 지퍼게이트라 할 수 있는 전주봉침 사건에서 '봉'을 한 대 묶어 이른바 '지골봉'으로 칭하며, 이를 끝까지 추적하고 규명해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정치 는 생물이자. 민주당이 또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 남은기간 어떤 변수가 발생해 현 선거 구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공천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평화당과 바른미래당도 전북지사와 전주시장 등 도내 주요 선거에 나설 후보군 영입작업에 막바지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평화당은 군산출신이자 참여정부 시절 국민참여 수석 등을 지낸 박주현 의원, 그리고 지난 17대 전주병(구 덕진)국회의원을 지낸 채수찬 카이스트 교수와 접촉해 출마여부를 놓고 긍정적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바른미래당도 명망있는 교수 및 기업인 출신을 상대로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형민기자·bmgari@

01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첫 날 85명 출사표

6·13지방선거 도지사, 교육감, 시장, 도·시·의원 예비후보등록에 이어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등록 첫날 도내에서는 8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도내 8개 지역 군수 예비후보는 23명, 군의원은 62명이 각각 등록했다.

이날 군수 예비후보등록 결과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7명이 등록한 부안군이며, 고

창군과 무주군 각각 3명, 원주군과 임실군 각각 2명, 진안군과 순창군 각각 1명이 등록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는 변동이 없으며, 14개 기초단체장은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67명이 등록했다. 지역별로 단체장이 무주공산인 정읍시장(12대1), 군산시장(11대1), 김제시장(10대1) 경쟁률이 높았다.

광역의원은 35개 선거구에서 84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이 2.4대1을 기록했고, 군산 2

선거구가 6대1로 가장 높았다. 69개 선거구 172명을 뽑는 기초의원 269명이 등록했으나 4명이 사퇴하거나 등록무효로 265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돼 1.5대1을 나타내고 있다.

정당별로 기초단체장은 민주당 44명, 평화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9명이다. 광역의원은 민주당 55명, 평화당 14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당 2명, 노동당 1명, 무소속 10명이다. 기초의원은 민주당 146명, 평화당 41명, 바른미래당 12명, 정의당 7명, 민중당 4명, 무소속 55명이다.

/장병운기자·argus@

(18.2*6.0)cm

03

전북 지선 공천 여 '속도전' 야 '탐색전'

민주, 350명 후보자 접수
7일까지 매듭 기선잡기 나서
평화·바른미래, 민주 견제 속
인재 영입 경쟁 후보자 물색

전북도내 정당들이 지방선거 공천에 여당은 속도전으로 기선잡기에 나선 반면, 야당은 인재영입과 동시에 탐색전으로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일부터 7일까지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 적합도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윤령의 1주일을 맞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전북에서 민주당과 1대1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민주당 경선과정을 지켜보면서 인재영입과 함께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내세운다는 전략이고, 바른미래당도 당선이 확실한 후보를 찾고 있다. 오히려 정의당만 도지사와 전주시장 후보를 일제감치 내세우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이 공천을 서두르는 것은 집권 이후

높아진 지지도에 출마예정자가 몰려 있어지는 과열경쟁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달 30일까지 민주당 도당에 마감한 지방선거 후보자 350명이 접수했을 정도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위는 지난달 31일 14개 단체장 57명(평균경쟁률 4대1), 광역의원 68명(1.94대1), 기초의원 225명(1.14대1)이 각각 심사를 통과해 예비후보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김제시장 후보가 8명(정호영, 박준배, 이흥규, 유대희, 강동룡, 오병현, 나유인, 신성욱)으로 가장 많고, 정읍시장 7명(이학수, 한명규, 이상욱, 유진섭, 김석철, 우천규, 김영재), 익산시장 6명(황현, 김영배, 김대중, 전완수, 김성중, 정현욱), 군산시장 5명(박재만, 이재호, 강임준, 강성욱, 문백규), 남원시장 3명(이상현, 윤승호, 이원주), 전주시장 2명(김승수, 이현웅) 순이다.

군 지역은 부안군수 4명(권익현, 김성수, 김인수, 서주원), 임실군수 4명(한병락, 박성수, 전상두, 이강경)으로 경쟁률이 높았고, 완

주군수(박성일, 유희태, 김영), 무주군수 3명(백경태, 서정호, 황정수), 장수군수 3명(이영숙, 양성빈, 장영수), 순창군수 3명(황숙주, 양영수, 장종일), 고창군수 3명(장병식, 박우정, 이호근), 진안군수 2명(이항로, 김현철) 순이다.

광역의원은 4명이 신청한 군산시 제2선거구가 가장 치열했고 9개 지역은 단수였다. 부안군 도의원은 조병서, 최훈열 의원 간 현역싸움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도당은 4일부터 재심위와 지역별 경선을 시작하고, 18일부터 23일까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경선을 마무리하고, 27일까지 비례대표 순위도 결정한다.

야당은 4월말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선거 이슈 쟁점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최대한 시간 벌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평화민주당 도당은 민주당의 경선 참여 후보자들이 늘어나면서 1대1구도로 전환하기 위한 선거체제와 민주당의 독주저지를 위한 성명전으로 강연전락을 펼치고 있다.

평화당 도당은 공관위 등의 활동을 시작으

로 선거체제에 돌입하면서도 공천을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 늦춰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는 민주당 공천을 지켜보면서 경쟁력 있는 후보 영입과 선거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전술로 볼 수 있다.

특히 평화당은 집권여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를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평화당 도당은 GM군산공장 폐쇄와 민주당 도당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 전주 봉천사건 등을 꾸준히 성명서를 통해 도민들에게 민주당의 부도덕성을 각인시켜나가고 있다.

바른미래당 도당은 지방선거기획단장을 선임했고, 오는 10일 도당 개편대회를 열어 본격적인 지방선거에 나선다. 바른미래당 도당은 도내 지역위원장 공모결과 남원임실순창 하대식 전 도의원, 김재부안 최병희 전 도의원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도지사 후보로 권태홍, 전주시장 오형수 위원장 등이 유권자 속으로 들어 간지 오래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도지사와 전주시장 등 출마예정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장병운기자·argus@

(24.4*13.7)cm

민주당 도당, 전주 광역의원 경선 갈등 부추겨

**후보자 68명 확정 발표
4개 선거구 중 '을'만 경쟁
여성의무공천 중앙당에 맡겨
을지역위원회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도당이 지난달 31일 광역의원 후보자를 확정된 결과 전주갑과 을, 병지역 위원회간 미묘한 갈등을 엿볼 수 있다.

도당 공관위는 지난달 31일 광역의원 명단 68명을 발표했다. 김문덕 도당위원장이 지역 구인 갑의 3개 선거구는 모두 단수인 반면, 이상직 위원장의 을지역구는 4개 선거구 가운데 3곳이 경쟁하게 됐다. 병지역구는 4개

선거구 중 3곳이 단수이고, 단 한 곳만 경쟁 지역이다.

전주 3개 지역구에서 을지역만 유독 경쟁이 많은 것은 현 위원장인 이상직 전 의원과 최형재 전 후보(2016년 총선후보)의 보이지 않은 경쟁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도당이 여성의무공천과 관련해 어정쩡한 판단도 한 몫 거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갑과 병은 경선을 손쉽게 치르고 본선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을은 본선에 앞서 경선을 치열하게 경쟁하며 내상을 안고 본선에 나서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다.

도당에 접수된 을지역 광역의원은 4개 선거구 가운데 이병철 후보 5선거구(효자4동)만 단수고, 김이재, 한기표 4선거구(서신동)

박현규, 김희수 6선거구(효자1, 2, 3) 송성환, 소순명 7선거구(삼천1, 2, 3) 등은 경선을 치러야 한다.

여기에 도당과 지역위원회의 여성의무공천과 관련해 다른 목소리도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 을 지역위원회는 서신동 지역을 공직선거법 등을 내세우며 여성의무공천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도당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을 지역위원회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당은 그동안 지역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관례와 달리 경선을 붙이고, 여성의무공천과 관련 유권해석을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맡겨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책을 받고 있다.

을 지역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여성의무공천을 30%이상 하도록 돼 있고, 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여성의무공천은 여성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라고 달리 해석하고 있다.

경쟁을 하는 을과 대조적으로 갑지역구는 정호윤(1선거구), 오평근(2선거구), 이병도(3선거구) 후보로 단수로 결정했다. 병지역구는 8선거구에서 김명자-오정화 시의원간 경선을 치르고, 나머지 3개 선거구는 단수로 확정했다. 병지역구 여성인 국주영은 후보를 단수로 하고, 오정화 후보는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을지역위원회는 4선거구를 여성인 김이재 후보를 여성의무공천으로 하고, 기초의원 선거구인 이미숙-이경신 지역 등을 여성간 경선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장병윤기자·argus@

(24.4*9.4)cm

전민일보

예선 통과 '권심'에 달렸다

민주당 출마예정자 권리당원 명부확보 혈안...돈 선거 우려

더불어민주당 출마예정자들이 당심공약을 위한 권리당원 명부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선 4기(2006년) 지방선거 이후 12년 만에 집권여당으로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선에 출전시킬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조사'를 각각 50%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를 권리당원 여론조사 100%로 실시할 예정이다. 1일 도내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이 권리당원의 배정 비율을 대폭 늘리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당원 잡기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 본선 진출자를 가리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려면 자신을 지지해 줄 권리당원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에선 권리당원들에게 특정 출마 예정자 명의로 신년 인사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돼 권리당원, 특히 신규 가입한 당원들의 명단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대두되는 등 선거가 다가올수록 권리당원 확보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보

인다.

지방선거 한 입지자는 "당원 명부만 확보하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어 인맥을 총동원해 명부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예선 통과를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권심' (권리당원들의 의중)을 의식한 출마 예정자들의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권리당원 명부 확보에 혈안이 되면서 금품선거, 과열·혼탁선거를 부추길 공산마저 제기되고 있다.

공천의 당락을 결정할 권리당원이 극히 제한되면서 명부를 돈으로 매입하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권리당원 명부 등을 내세워 캠프에 접근, 금품을 요구하는 속칭 '선거 브로커'의 활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는 "뒤 늦게 출마를 결정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권리당원 명부 확보다. 명부가 있어야 나를 알릴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 힘들게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일반당원들에 비해 요

즘 권리당원들은 바람이나 세물이에 휩쓸리기보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시시각각 정보의 흐름에도 민감하다. 한마디로 스마트한 젊은층 비중이 높아져 기존과 같은 전략으로는 공략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진문이 누구에게 마음을 주느냐가 이번 지방선거 공천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20.3*13.3)cm

03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첫 날 북적

군수 23명, 군의원 62명 등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내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일 군수 23명과 군의원 62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번 군의원 예비후보등록에서는 부안군이 무려 19명이 한꺼번에 등록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수 예비등록 현황을 보면 ▲완주군수는 김영(민주당) 후보, 유희(민주당) 후보 ▲진안군수 김현철(민주당) 후보 ▲무주군수 백경태(민주당) 후보, 서정호(민주당) 후보, 황인홍(무소속) 후보 ▲순창군수 양영수(민주당) 후보 ▲고창군수 이호근(민주당) 후보, 장명식(민주당) 후보, 유기상(평화당) 후보 ▲장수군수 양성빈(민주당) 후보, 이영숙(민주당) 후보, 권건주(미래당) 후보, 김창수(무소속) 후보 ▲임실군수 전상두(민주당) 후보, 한병락(민주당) 후보 ▲부안군수 김성수(민주당) 후보, 김인수(민주당) 후보, 서주원(민주당) 후보, 김경민(미래

당) 후보, 김상곤(평화당) 후보, 조병옥(평화당) 후보 등 23명이다.

또 군의원의 경우 ▲완주군은 백현, 윤여연, 김윤호, 정종윤, 김재천, 박찬은, 이인숙, 황재석, 김덕연 후보 등 9명이며 ▲진안군은 손동규, 김정만, 조준열 후보 등 3명이다.

또 ▲무주군은 박희용, 김주성, 윤정훈, 오광석, 임용식 후보 등 5명이며 ▲장수군은 김남기, 한국희, 송원영, 김남수, 이종철, 장정복, 최화식 후보 등 7명이 등록했다.

▲임실군은 엄난희, 진남근, 장종민, 정철성, 김왕중 등 5명이며 ▲순창군은 김문소, 손충호, 장화영, 신용균, 조정희, 조순조 후보 등 6명이다.

▲고창군은 박정숙, 정재웅, 김성수, 김영호, 김한성, 정길목, 임정호, 김삼용 후보 등 8명이며 ▲부안군은 이강세, 이태근, 장은아, 김형대, 박병래, 박상호, 오장환, 박천호, 김연식, 정구모, 김광수, 김동선, 송희복, 이한수, 김정기, 문찬기, 이현기, 김병호, 하윤기 후보 등 19명이 등록을 마쳤다.

정재근 기자

(11.7*13.8)cm

새전북신문

2018 04 02

01

GM 군산 사내협력사 '집단 해고'

1일 비정규직 전원 근로계약 해지, 2일 부당해고 맞소송 사외 협력사들도 구조조정 태풍 속 대량 실직사태 확산

정성학 기자

csh@sbnnews.com

제네럴모터스(GM) 군산공장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실직사태도 확산되고 있다.

군산공장 사내 협력사 3곳 중 A사와 B사는 예고대로 1일 비정규직 140여 명 전원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앞서 이들은 "3월 말로 한국GM과 도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근로계약을 해지기로 했다"며 집단 해고를 통보했었다.

양사 근로자들은 올 것이 왔으며 망연자실한 채 울분했다. 또, 부당한 해고에 맞서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복각투쟁을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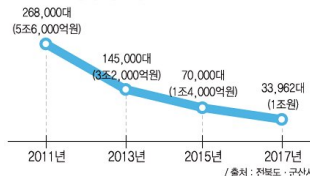
이들은 곧바로 2일 한국GM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이른바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일종의 복직 투쟁으로 집단 소송에는 120명 가량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서도 비정규직이란 꼬리표를 단 채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마저도 못주겠다며 아예 길거리로 내쫓아버린 것은 굶어 죽으란 것과 다를 게 없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군산시를 향해선 긴급 생계비 지원을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한 집안의 가장들이 아무런 소득없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가난한 법정다툼

■GM 군산공장 생산량 추이



을 벌이면 가정경제는 파탄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억울하게 내쫓긴 근로자들이 일터로 다시 복직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도와줬으면 한다"고 울먹였다.

똑같은 처지에 몰렸던 C사측은 일감이 좀 더 남았다며 비정규직 40여명 모두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쪽으로 급선회 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올 5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 게 전부다.

달달한 C사측 근로자들도 집단소송에 동참하는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사가 문 닫으면 군산공장 사내 협력사는 모두 사라진다.

사외 협력사들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GM 군산공장만 바라보는 1차 협력사들은 구조조정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몇몇 협력사들은 아예 생산라인이 멈춰섰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군산공장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직격탄 맞은 결과"라며 "휴업상태에 빠진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 금융권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서거나 추가 대출을 금지할까봐 대부분 쉬쉬하고 있을 뿐"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도내 사외 협력사만도 대략 180여개사에 근로자는 1만2,000명 정도, 이중 1차 협력사는 50개사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GM측은 군산공장 정규직들도 희망퇴직을 받아온 상태다. 전체 임직원 1,650여명 중 70%에 가까운 1,100명 가량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40대 후반 근로자는 최근 군산 타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희망퇴직이 확정된 직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해왔다"는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겠다고 조사하고 있다.

(27.5*11.3)cm

전북도의회 의장 보선 2파전 예고

내일 선거 조병서·양용모 대결

6.1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전북도의회 의장단 보궐선거가 내일(3일) 실시된다. 관심 큰 의장선거는 조병서 부의장과 양용모 의원 2파전이 예상된다.

자신이 의장직에 출마의 뜻을 가진 후보자는 지난달 30일까지 의장단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조병서 부의장은 사퇴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황 선출방식이어서 무기명 투표 결과 조병서 부의장이 다득표할 경우 의장에 선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일 현재로서는 의장선거의 경우 3선의 조병서 부의장과 의장 출마의 뜻을 밝힌 2선의 양용모 의원간 2파전이 예상된다.

전북도의회는 3일 제352회 전북도의회 임시회를 열어 공석인 의장, 부의장(1석), 농산림경제위원장, 교육위원장 등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번 의장단직 보궐선거는 올 6.13 지방선거에 황헌 전 의장이 익산시장에, 정호영 전 부의장이 김제시장, 이학수 농산림경제위원장이 정읍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장명식 교육위원장이 3월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할



조병서 부의장



양용모 의원

예정이다.

관심을 끄는 의장의 경우 기초단체장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 중 조병서 부의장과 6.13 지선에 출마하지 않는 양용모 의원간 2파전이 예상된다.

조병서 부의장은 경선보다 추대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부안지역 광역의원 수가 2명에 1명으로 줄면서 같은 선거구 최훈열 의원과 양보 없는 공천 경쟁이 불가피해 이번 의장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 불출마 입장을 밝힌 양용모 의원은 민주당출신 의원 중심으로 자신의 중립성을 부각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만일 3선의 조병서 부의장이 의장이 될 경우 부의장 1석이 늘어 2명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정재근 기자

민주 도내 시장군수 평균 4대 1 경쟁

공천후보 공모 마감 김제 8명 신청 '최다'

도당, 8일경 경선지역 발표

▶ 관련기사 2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공천장을 받기 위한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 공천=당선' 인식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달 중순에 마무리될 경선 결과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기초단체장 공천 후보자 공모를 마무리한 결과 14개 시·군단체장 선거에 모두 57명이 등록해 평균 4.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제시장에 8명이 공천을 신청해 가장 많았으며, 정읍 7명, 익산 6명, 군산 5명, 임실·장수·부안 각각 4명, 남원·완주·순창·고창 각 3명, 전주·진안·무주 각 2명 등이다.

민주당 도당은 공천후보 접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2~4일까지 서류심사, 6~8

■ 더불어민주당 전북 기초단체장 공천후보자 등록현황

시·군	등록수	후보 현황
전주	2명	김승수·이현웅
군산	5명	강성욱·김임준·문태규·박재만·이재호
익산	6명	김대중·김성중·김영배·전원수·정현욱·황현
정읍	7명	김석철·김영재·우천규·유진섭·이상욱·이학수·한명규
남원	3명	윤승호·이상현·이환주
김제	8명	강동룡·나유민·박준배·신성욱·오병현·유대희·이흥규·정호영
완주	3명	김영·박성일·유희태
진안	2명	김현철·이항로
무주	3명	백경태·서정호·황정수
장수	4명	오재만·양성빈·이영숙·정영수
임실	4명	박성수·이강경·전상두·한병락
순창	3명	양영수·장중일·황숙주
고창	3명	박우정·이호근·장명식
부안	4명	권익현·김성수·김인수·서주원

일까지 면접을 실시한다. 또 1~7일까지 공천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적합도 조사를 진행한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민주당 도당은 이르면 8일경 단수공천 지역과 경선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의 관심이 현역

단체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불출마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출마하지 않는 곳과 민주당 소속이 아닌 지역의 경선 배수 압축 결과에 쏠린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3배수 후보 압축 후 이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명 이상이 공천을 신청한 군산·익산·정읍·김제·장수·임실·부안에서는 경선에 앞서 심사결과를 토대로 컷오프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1~2위 후보 간 격차가 컸던 일부 군지역의 경우 단수후보 공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 전북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민주당 공천=당선 가능성이 높아 당내 경선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서류심사와 적합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수압축이 이뤄지는 만큼 이번 기초단체장 공천을 신청한 후보 진영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주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도당은 지난해 연말 진행

돼 현재는 밀봉상태로 보관 중인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를 공천 면접 심사과정에 열람한 뒤 해당자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에 적용하고, 해당자 신상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박영민 기자

(24.0*16.2)cm

광역 35개 선거구 1.54대 1...기초 69개 선거구 1.15대 1

● 민주당 전북도당 6·13 지선 '지방의원' 공천 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6·13 지방선거 공천후보 등록 마감 결과, 광역의원 선거구 12곳과 기초의원 선거구 28곳에서 정수내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오는 8일까지 이뤄지는 민주당 도당의 서류심사 결과 이변이 없는 한 경선 없이 공천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공천을 위한 후보접수를 마감한 결과 35명을 공천하는 광역의원의 경우 35개 선거구에 68명이 공천을 신청해 평균 1.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97명을 뽑는 기초의원의 경우 69개 선거구에 225명이 등록해 평균 1.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역 의원의 경우 35개 선거구 중 12곳에서 1명씩만 등록, 단독 신청이 이뤄졌다. 전주의 경우 11개 선거구 중 7곳에서 단독 신청이 이뤄졌으며, 익산 제2선

광역 12곳·기초 28곳
정수내 등록 마감 완료

군산라·아, 완주라미달
도당, 추가 공모할 예정

거구와 완주 제1선거구, 순창, 고창 제1·2선거구도 1명 후보만 접수했다.

기초 의원의 경우는 69개 선거구 중 정수내 후보 등록이 이뤄진 단수선거구가 28곳이다. 전주의 경우 5곳(가·다·라·바·사·차·가), 군산 1곳(가), 익산 1곳(다), 정읍 5곳(가·나·라·바·사), 남원 5곳(가·나·라·바·바), 완주 2곳(나·다), 진안 1곳(가), 임실 1곳(가·다), 순창 1곳(나), 고창 1곳(나), 부안 2곳(가·나) 등이다.

특히 이번 후보 공모에서 군산 라선거

■ 더불어민주당 전북 광역의원 공천후보자 등록현황 (광역의원 선거구별 1인 공천)

선거구	후보자	선거구	후보자	선거구	후보자
전주 제1선거구	정호은	군산 제2선거구	김동규·김종식·윤효모	김제 제1선거구	홍성학·황영석
전주 제2선거구	오명근		이희숙·최승란·한상오	김제 제2선거구	나민권·장영주·최정의
전주 제3선거구	이병도	군산 제3선거구	김문수·조동용	완주 제1선거구	송지용
전주 제4선거구	김기재·한기표	군산 제4선거구	문승우·이복	완주 제2선거구	강성룡·권요안·두세훈
전주 제5선거구	이병철	익산 제1선거구	김대오·박정수	진안	김남기·이한기·이충국
전주 제6선거구	김희수·박현규	익산 제2선거구	김정수	무주	이성수·이한승·황의탁
전주 제7선거구	소순명·송성환	익산 제3선거구	김기영·배수연	장수	이희숙·정익수
전주 제8선거구	김명지·오정화	익산 제4선거구	이명기·최영규	임실	박정규·한원수
전주 제9선거구	국주영은	정읍 제1선거구	김철수·임승식	순창	최영일
전주 제10선거구	최찬욱	정읍 제2선거구	김대중·김상민	고창 제1선거구	성경찬
전주 제11선거구	이명연	남원 제1선거구	박철순·이정린	고창 제2선거구	김민기
군산 제1선거구	강태창·김진·나기학	남원 제2선거구	강용규·우진용·이윤모	부안	조병서·최현열

구와 아선거구, 완주 라선거구 등 3곳이 의원정수를 채우지 못했다. 군산 라선거구의 경우 정수가 3명인데 2명이, 아선거구는 2명인데 1명만, 완주 라선거구도 2명인데 1명만 접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도당은 지난 달 31일 진행된 2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공모를 진행하기

로 결정하고, 공모 절차 등의 업무를 사무처에 위임했다.

이처럼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구 중 정수내 등록이 이뤄진 지역은 서류심사와 적합도 조사 결과에서 이변이 없는 한 공천장을 무난히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수를 초과해 후보 접수가 이뤄진 광역 23곳과 기초 38곳은 경선을 통해 공

천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정수내 접수 지역의 경우 문제가 없다면 단수지역으로 8일경 확정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는 경선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서류심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배제할 수 없어 단수나 경선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민 기자

(30.1*14.1)cm

민주 맞설 '야권-무소속 연대' 실현될까

6.13 지선 판세 짚어보기

● 남원시장

6.13지방선거 남원시장 선거에 7명의 후보들이 나설 예정인 가운데 현직 시장과 전직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맞붙고 무소속 후보 또한 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단일화 움직임은 보이는 등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지도를 기반으로 든든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내 경선을 거쳐 본선 티켓을 거머쥔 후보자가 사실상 남원시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꼽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용호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형성된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추진이 이어지고 있고, 향후 민주당 경선 결과 이후 선거판 세 변화에 따른 상대 후보의 추가 단일화도 배제할 수 없어 민주당과 야당의 1:1 구도가 형성돼 박빙 선거전으로 양상이 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6.13지방선거 남원시장을 둘러싼 민심의 화두는 단연 '변화와 혁신'이다. 유권자들은 남원의 제1축인 관광산업의 체제 개편과 동시에 새 먹거리 창출을 통한 제2의 남원 부흥을 이끌어낼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강동원



김영권



박용섭



윤승호



이상현



이현주



최연숙

민주, 현·전직 시장·도의회 부의장 경선서 맞대결 '강동원-김영권-박용섭-최연숙' 단일화 여부 관심

남원시장 후보군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후보로는 이현주 현 남원시장을 비롯해 윤승호 전 남원시장, 이상현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등 3명이 경선 경쟁을 벌인다. 민주당은 6.13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 확정을 위한 경선후보 선정을 위해 1일부터 7일까지 민주당에 공천신청을 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바른미래당 후보는 최연숙 전 EBS 교육방송 신나는 영어 남원지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민주평화당에서는 강동원 전 국회의원의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무소속에는 박용섭 전 남원시안전경계건설국장과 김영권 전 국가정보원 이

사관이 각각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 둘은 최근 이용호 의원 중재로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정당별 1:1 대결구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단연 앞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번 민주당 남원시장 후보 경선에 관심이 집중된다.

반면 민주당 경선을 통한 최종 본선 후보가 결정됐을 경우 이에 맞서 무소속연대와 야당의 제2 단일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선거변수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 후보 대 무소속과 야당 후보가 똬치 1명의 단일화 된 후보의 경합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남원시장 판세에 큰 영

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남원 후보자 대 단일화 된 야권 후보(최연숙+박용섭+김영권+강동원)의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남원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윤전시장과 이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최 남원지사장, 박 전 남원시안전경계건설국장, 김 전 국가정보원 이사관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시장의 경우 현직 프리미엄에 따른 고정적 지지층과 민주당 인지도, 단체장직 유지를 통해 사실상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점에 비춰볼 때 다른 후보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남원이 최근 10여년간 정체를 거듭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얼굴을 원하는 '세대교체론'도 강하게 일고 있어 차기 남원시장은 선거 전략은 정책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남원=이강모 기자

(24.1*17.8)cm

송하진 지사, 내일 지선 출마 선언

송하진 전북도 지사가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다.

송 지사는 오는 3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에서 6.13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송 지사는 당초 2월께 "재도전을 못할 것 없다"며 재선 도전을 시사했지만, 지엠사태 등 지역 현안이 잇따라 자 출마선언을 미뤘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일정에 돌입하자 출마 선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송 지사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중앙당에 전북도지사 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을 했으며, 2일 면접심사를 받는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공천신청 후보는 송하진 지사와 김춘진 예비후보 등 2명이다.

송 지사는 오는 5월 24일 후보자 등록까지 지사직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원 기자

(11.2*7.7)cm

03

김춘진, 송지사에 맞짱토론 제안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송지사에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30일 “송지사가 본선을 방불케 하는 당내 경선에서 자신의 실정에 대해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비전도 제시하지 않은채 지방선거를 감싸이선거로 치르려 하고 있다”며, “전북의 미래를



놓고 방송사나 시민단체 주관으로 1대1TV토론을 벌이자”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송지사가 자신의 핵심공약조차 지키지 못했고, 민선6기 전북 경제는 곤두박질쳤으며, 지난 4년간 전북예산 증가율은 중앙예산 증가율의 1/4 수준에 불과하고, 전주중합경기장 문제 등 지역사회 갈등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TV토론을 통해 전북발전을 견인할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수정 기자

(11.2*7.7)cm

전북중앙신문

2018 04 02

01

“누가 본선티켓질까” 경선시계 빨라져

민주, 오늘 지사후보 면접
도당, 23일까지 경선완료
야권 후보자 영입에 전력
GM 공장폐쇄등 이슈로

도내 여야 주요 정당의 6.13 지방선거 후보 공천 작업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된다. 집권 민주당은 앞으로 3주 후인 오는 23일까지 속전속결로 주요 선거의 후보 공천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민주당 공천 과정을 지켜본 뒤 당 후보군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북의 6.13 지방선거는 남북정상회담, 민주당-정의당 교섭단체 구성 등의 중앙발 이슈와 함께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전주시와 공지역

작가간 법적 논쟁 등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일 중앙당사에서 도지사 후보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다. 민주당 도지사 경선은 송지현 현 지사와 김춘진 전 전북도당위원장 양자간 대결이다. 후보 적합도에 여론조사는 지난 주말 종료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2일부터 시작한다. 공관위의 후보 심사 및 경선후보자 확정 마무리 시점은 오는 21일째다. 도당 공관위는 지난 달 31일 워크숍을 갖고 경선후보자에 대한 사전조사 작업에 들어갔다.

전북도당은 도내 기초단체장 경선과 관련, 오는 7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미 주요 후보들의 경선 캠프는 여론조사에 대비해 초간장 국면에 들어간 상태다. 여론조사가 사실상 공천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당은 여론조사 결과는 부작용을 우려해 비공개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어 이번 주 6일부터 사흘간 경선 후보자 면접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 재심이 신청되면 4일부터 21일까지 재심위원회도 연다. 도당은 이런 일정을 거쳐 오는 23일까지는 지역구 기초 및 도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 경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내 야권은 도지사와 전주시장 등 주요 선거의 후보자 영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권은 민주당 공천 결과를 보고 ‘이삭줍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도지사-시장 후보 등 주요 선거 후보들의 영입 작업에 주력하는 동시에 지방의원 후보자는 민주당 후보 공천이 완료된 이후에 공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종희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주말 채수찬 전 국회의원과의 면담하고 지방선거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채 전 의원은 고심하겠다는 입

장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전북 등 호남권 선거에 주력하는 반면 바른미래당은 우선 중앙 상황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앙에서 바람이 불어야 호남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김관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1일,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를 촉구했고 안 위원장은 오는 4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기로 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의 중앙발 선거 이슈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관계와 민주당-정의당의 국회 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정계개편 여부 등이다. 이들 사안은 전북 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정상회담은 전반적으로 집권 여당 쪽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도내 차원의 이슈로는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및 전주시와 공지역 작가간 법적 다툼이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일현기자

(22.8*13.2)cm

“시장군수 책임자는 나”

민주, 기초단체장 57명 접수
기초의원은 225명 경쟁 치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13 지방선거 후보 공천 경쟁에 돌입했다.

30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공천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14명을 공천하는 시장·군수 선거에 57명이 접수했다.

지역별로는 김제시장 후보가 8명으로 가장 많고, 정읍시장 후보 7명, 익산시장 후보 6명, 군산시장 후보 5명, 부안군수와 장수군수, 임실군수 후보 각각 4명, 고창군수, 남원시장, 무주군수, 완주군수, 순창군수 후보 각각 3명 등이다.

전주시장 후보만 2명이 신청해 가장 지원자가 적었다. 선거구가 35개인 광역의원에는 68명이 지원했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6명이 신청한 군산시 제2선거구다. 선거구가 69개인 기초의원 선거에는 171명이 의원 정수다. 이들 지역에는 민주당에서 225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이로써 민주당 전북도당을 통해 출마하겠다고 나선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는 모두 350명으로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일부터 후보 신

청자가 1명인 선거구를 중심으로 심사에 들어가 9일까지 공천을 확정할 예정이다.

4월 둘째 주인 9일부터는 복수 후보 신청 지역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 20일을 전후해 공천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어 이의신청 등의 변수가 생기더라도 4월말까지는 경선후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천 심사는 당 기여도, 업무 수행역량, 도덕성, 공천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공천 적합도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를 한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들의 본선 경쟁력 검증을 위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도당 사무처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개인당 10분간 면접심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공천관리위원회 19명 중 9명이 여성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섬세하면서도 날카로운 질의가 많을 것으로 점쳐진다.

박희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공천심사가 까다로울 것이라는 기준안이 오래 전부터 공론화되면서, 예년에 비해 50여명 가까이 후보가 덜 접수된 상태”라며 “상대가 있는 것인 만큼, 공정하게 심사해서 바람직한 경쟁구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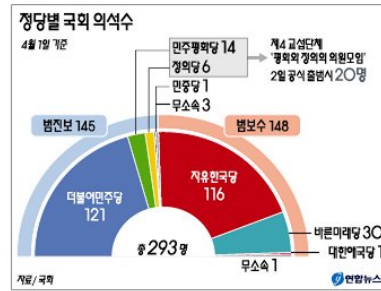
01

국회 원내 4당체제 재편 평화-정의당 캐스팅보트 주목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국회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원내 4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범여권과 범야권의 의석 수가 엇비슷해졌다. 평화-정의당의 국회 캐스팅보트 역할이 주목된다.

20석의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됨에 따라 전북도지사 후보군에 올랐던 정동영, 유성엽 의원과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박지원 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 가능성은 사라졌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교섭단체 합의를 갖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국회에는 2일 정식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6면 '평화와 정의' 모임을 민주당과 함께 여권으로 분류하면 국회의 범여권



의석 수가 범야권을 약간 앞선다.

현재 재적 국회의석은 293석이며 이 중 범여권은 민주당 121석+평화정의 20석+민주당 1석+정세균 국회의장 1석+민평당 성향의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석+무소속 이용호, 손금주 2석 등으로 148석으로 분류된다.

반면 범야권은 자유한국당 116석+바른미래당 27석(민평당 성향 3석 제외)+애국당 1석+무소속 이정현 1석 등 145석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편집=류경임기자 geim25@

(11.1*10.4)cm



군 단위 단체장 및 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일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군의회 예비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

/김현표기자

도의원 사퇴 줄줄 후보 등록부터 치열

도의원 6명사퇴 단체장 출마 의회 23명뿐 새의장단 구성 부안군 첫날 26명 등록 최대

오는 6·13 지방선거에 시장·군수로 출마하는 도의원들의 사퇴가 30일 이어졌다.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4월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 날 전북도 의원 6명이 단체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군수 출마를 위해 고창군수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장 명식(고창2)의원과 진안군수에 출마하는 같은당 김현철(진안)의원, 고창

군수에 출마하는 같은당 이호근(고창2)의원, 무주군수에 출마하는 같은당 백경태(무주)의원, 장수군수에 출마하는 같은당 양성빈(장수)의원 등이 이 날 모두 사퇴서를 제출했다.

또 민주평화당 박재완(완주) 의원은 완주군수 출마를 위해 6일 사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8명도 각각 시장 출마를 위해 3월 초 의원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 들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의원 가운데 단체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의원은 총 14명으로 전체 정원 38명 가운데 이미 사퇴한 1명을 포함하면 23명만 남게 된다.

전북도의회는 3일부터 6일까지 임시 회를 열어 공석이 된 의장단을 다시 구성한 뒤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의회를 열지 않게 된다.

이들 의원들은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의정활동으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길로 나아간다”며 도민들에게 인사했다.

올해 유독 기초단체장으로 체급을 높이려는 광역의원이 많아진 이유는, 무주공산 지역이 많은데다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단체장과 광역의원 관할 선거구가 같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 된다.

실제로 무주공산지역인 정읍시장에는 12명의 후보가 이날까지 등록돼 있고, 군산시장 후보도 11명, 김제시장

후보도 10명이나 된다.

한편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1일, 도내에서는 부안군, 장수군 접수 경쟁이 치열했다.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는 완주군 2명, 진안군 1명, 무주군 3명, 임실군 2명, 순창군 1명, 고창군 3명, 부안군 7명 등이다.

또 군의원은 완주 9명, 진안 3명, 무주 5명, 장수 7명, 임실 5명, 순창 6명, 고창 8명, 부안 19명 등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탁금과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및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박정미기자 jungmi@

(22.3*22.9)cm

01

민주당 게시판에 특정후보 비난 글 폭주, 비공개 전환

조직적 개입 차단 VS 참여 자유 침해 여론 팽팽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글이 폭주하자 도당이 홈페이지 게시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도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자유게시판에 특정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이는 공정경선을 통해 도민들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도당의 의지와 반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경선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자유게시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 일부 시민들은 "참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직적 개입 차단'이라는 여론과 '참여 자유 침해'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현철 기자

(6.7*10.8)cm

01

교육감 선거에 '미녀 3총사가 떴다'

캠프에서 많은 일 다함, 수행-보도언론홍보 담당
"아버지 교육철학에 공감해 참여하게 됐어요"

"학생 모두가 교육을 통해 자신이 즐기고 원하는 직업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는 6·13 전북교육감 선거에 나오는 예비후보를 지원하려는 '미녀3총사'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황호진 예비후보 딸 황소담(25)씨, 유관찬 예비후보 딸 유주연(28), 천호성 예비후보 딸 천지연(25)씨다.

이들은 모두 각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황 씨는 아버지를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 유 씨 역시 수행과 인문계 아버지를 알리는 홍보 역할, 천 씨도 언론을 담당한다.

이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황 씨는 "어린 시절 프랑스에서 유치원을 다녔는데 프랑스 학교에서 생활은 즐겁고 행복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억압되고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만이 전부여서 학교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며 "이런 교육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하신 아버지의 목표에 공감해 선거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 씨는 "아버지는 40여년간의 교육직 경험과 노하우를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했다. 그런 아버지의 꿈을 옆에서 응원하고 싶었다"면서 "아버지에게는 지금이 결정적인 시기여서 진심으로

은 힘을 다해 도와드리기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천 씨는 "그동안 아버지의 삶과 나의 삶은 별개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던 중 가족회의에서 아버지는 '데어한 곳은 달라도 교육은 공평하게 받게 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아버지를 떠나 아래에서 위까지 누구하나 빠짐없이 소외되지 않는 공평한 교육을 실현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자신감 있게 선거에 나섰지만 힘에 부칠 때도 있었다.

천 씨는 "인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장을 낸 자료와 다르거나 아버지의 이름이 빠질 때 대응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유 씨는 "교육감 선거의 범위가 너무 넓어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것이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황 씨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명함을 나눠줄 때 부담감을 느꼈다"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며칠을 10장밖에 나눠주지 못했다. 처음보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이들이 원하는 전북 교육의 미래는 모두 같다. 학생모두가 공부에 열매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좋아하는 것을 교육 받고 직업으로 이어지는 것.

유 씨는 "모든 학생은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준비는 행운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행운이라는 감각 선물이 나타나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눈앞에서 놓칠 수 밖에 없기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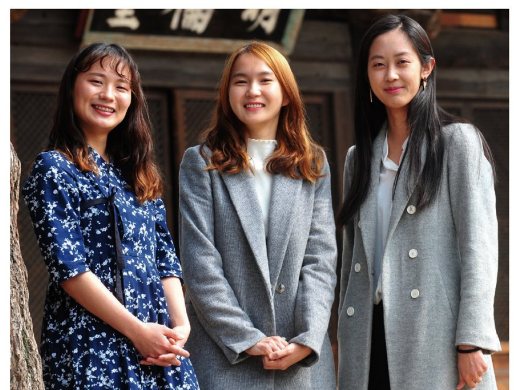
천 씨는 "대한민국의 학생은 꿈이 없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야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학생이 태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직업은 다양한데도 꿈이 공무원 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고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원한다"고 밝혔다.

황 씨는 "경쟁교육으로 서열화 하는 교육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면서 "서로가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 60일을 남겨둔 이들은 유권자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들은 "대부분의 도민은 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더 그렇다"면서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조금 더 선거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정규 기자



6.13 지방선거에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로 활동중인 (왼쪽부터)천호성 후보 딸 천지연씨, 유관찬 후보 딸 유주연씨, 황호진 후보 딸 황소담씨가 지난달 30일 전주캠프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35.3*14.6)cm

03

강동원 전 의원 거짓말? 사실은 중앙당 소통 부재 때문

지방정가 강 전 의원 남원시장 출마 결단 후 지역위원장 임명 유력 전망
정현을 현 익산시장과 형평성 논란, 김종희 위원장이 직무대행 맡아

민주평화당 남원시장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강동원 전 국회의원이 때 아닌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평화당 지역위원장을 맡아 남원은 물론 순창과 임실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안팎의 기대와 달리 중앙당은 김종희 전북도당위원장을 해당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을 맡아 이번 선거에서 맹활약하겠다는 강 전 의원의 다짐은 공언이 됐다.

그러나 강 전 의원의 이 같은 공언에 원인을 제 공한 것은 평화당의 지도부와 현역 의원간 소통 부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김종희 위원장을 비롯한 중진 의원과 초선 의원 등이 강 전 의원을 만나 시장 출마를 제안했고 이 자리에서 지역위원장 임명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이후 강 전 의원은 출마를 선언, 이 같은 의지를 전했으며 다음날 김종희 위원장은 강 전 의원 영입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알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 배포했다.

실제로 정현을 익산 시장의 경우 평화당 입당을 선언하면서 지역위원장으로 인선돼 지방정가

는 자연스럽게 강 전 의원이 평화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곳은 이용호 의원의 국민의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로 인해 평화당 지역위원장 공석 지역이었다.

하지만 중앙당은 예상을 깨고 강 전 의원이 아닌 김종희 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중앙당은 김 위원장으로 하여금 군산 지역위원장도 겸하게 했다.

그러면서 남원과 비슷한 상황인 손금주 국회의원 지역구도 광주시당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용주 의원이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중앙당 관계자는 “인재 영입과 지역위원장 인선 등 중요한 당무 과정에서 활발한 소통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원만치 않아 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우선은 지방선거 승리가 중요하다. 모두 뜻을 하나로 모아 선거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정현을 시장이 특혜를 받은 셈이 됐다. 원칙은 모든 사람앞에 공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13.1*12.2)cm

05

경찰청,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의자 직접 만나 공식 사과

“적법절차·인권수사 원칙 못지켜 죄송”

경찰 “이런일 다시 없을 것”
최씨 “가해 경관 일부 유감”

대한민국 경찰이 18년 전 발생한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16년 무죄 선고를 받으신 재심 청구인과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공식으로 사과

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모(34)씨를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살인사건의 진범에게 유죄 판결을 확정 짓자 뒤늦게 최씨를 찾은 것이다.

전북경찰청 이현재 형사과장은 전주 완산구 효자동 한 커피숍에서 최씨를 만나 “경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의 무죄가 확정된 2016년 11월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이날까지 3차례 사과문을 내놓았지만 직

접 찾아간 것은 처음이다.

최씨는 “경찰이 찾아와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가해 경찰관 중 일부는 사과하지만 다른 분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서운한 감정도 내비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익산시 약촌 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자 유모(당시 42세)씨가 흉기에 찔린 채 본인의 택시에서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최초 목격자인 최모(34)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최씨를 상대로 강압수사를 벌인 끝에 최씨에게 자백을 받아냈다.

이후 사건 발생 20일 만에 재판에 넘겨

진 최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3년 만에 재조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의 친구로부터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며 김씨와 김씨 친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그 사이 김씨와 김씨의 친구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은 2006년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씨는 만기출소 후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동시에 김씨를 체포했고 지난달 27일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를 확정했다.

김기주 기자

(23.5*11.8)cm